월요광장

기억의 방법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들 한다. 잊는다는 것은 필연적이면서도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해지지 않게 된다면? 태어날 때부터 살아온 날까지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는 차라리 사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원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망각만큼 기억 또한 중요하다.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삶 역시 상상할 수 없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문자의 유무일 만큼 오래전부터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해 왔고 기록을 통해 기억해 왔지 않은가. '과거의 긴 그림자' '기억 속의 역사' 등의 저자인 독일 콘스탄츠대학 교수 알라이다 아스만은 기억을 문화적 기억과 소통적 기억이라는 용어로 나누었다.

문화적 기억은 일반적인 텍스트에 바탕을 둔 채로 시대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소통적 기억은 구두로 전승된 회상들을 일컫는다. 인류는 박물관이나 기념비·기록물 등을 통해 기억을 전승한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의 증인들을 통한 소통적 기억이 어느 미래에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적 기억으로 남겨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가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인 옛 전방과 일신방직 광주공장 부지 개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제가 주도했지만 우리나라 산업혁명의 역사가 묻어 있고 87년여 세월 동안 축적된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다. 이곳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5대 문화권 계획에서 근대 산업 유산을 이용한 시민예술촌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또한 도시재생 계획에서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지역으로 근대 산업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등 역사 문화적 측면의 계획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개발업체에서는 공장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변경해 상업시설, 업무시설, 주상복합시설 등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시는 사전 부지 협상 선정을 위한 전문가 합동 기획단을 구성해 부지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곧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현재 일부 시민사회에선 체험·교육 공간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일제 적산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은 시민을 위하여 환원되어야 하므로 일반 시민을 위한 역사공간과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전방·일신방직에 보존된 건축물은 1930년대 근대건축물 4동, 1950년대 22동, 1960년대 26동, 1970년대 30동, 1980년대 이후 203동 등 총 259개 동이 남아 있다. 개발 업체 측은 철저한 전문가 검토를 전제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산업유산을 최대한 보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1934년 일신방직 공장 건설 당시 철골구조로 지은 화력발전소와 고가수조·보일러실 등 근대 산업유산으로 상징성을 가진 기존 시설 등 일부 중요한 시설은 보존하고 근대산업박물관을 조성하는, '일부 보존을 통한 개발 계획'이다.

광주시는 문화유산이라 해도 과도하게 보존함으써 시민이 필요한 인프라나 편의시설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가진 시민도 많다고 했다. 광주를 사랑하는 방식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150만 시민 모두가 손뼉 칠 안을 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다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어찌 됐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논의하고 결론을 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기화됨으로써 많은 물리적·행정적·금전적 손실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갈등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지역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논의 중에 있는 광천동 시민아파트 원형 보존이나 또 언젠가 논의될 동구의 옛 광주적십자병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처럼 많은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나 공간에 대해서는 한 가지 틀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역사적 자산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활용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례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다양한 기억의 방법들에 대한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거·현재·미래의 다양한 시점에서 유연한 시선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꿈꾸는 2040

미얀마에서 광주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

김병수
위민연구원 이사
광산구청 인권팀장

지난 2월 초, 미얀마의 최고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여당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군부 쿠데타로 인해 구금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오랜 군부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 정부를 수립했지만,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 다시금 미얀마 민주화의 역사에 어둠이 몰려온 것이다. 그러나 미얀마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거리 곳곳에서 군부의 하야와 민주 정부의 재수립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늘어나자 군부는 그 총구를 시민들에게 겨누기 시작했다. 그렇게 80년 5월의 광주가 지금 미얀마에서 다시 한번 펼쳐지게 되었다.

미얀마의 거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이다.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라며 쥐여 준 총은 시민들을 향해 불을 뿜었고, 곳곳에서는 차마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잔혹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군부 세력의 탐욕과 권력욕이 미얀마의 거리에서 인권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이 참담한 사태를 지켜보는 광주 시민들에게는 자꾸만 미얀마 거리의 상황에 80년 광주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군부의 독재 야욕에 반대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치며 들고 일어난 광주 시민들에게 신군부 세력이 무차별적인 진압과 폭력을 행사했던 80년 5월의 비극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광주는 외로웠다. 지금과 같이 정보통신망이 촘촘히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군부 독재가 지속되면서 언론과 외신도 자유롭게 광주의 현장을 취재하지 못했다. 시민들은 진실을 알리고 민주주의와 정의의 정신을 수호하고자 노력했지만 거대한 군부의 폭력 앞에 무수한 피해를 당하게 되었다. 광주의 거리에서는 온통 인권 유린과 계엄군의 만행이 가득했다. 누군가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광주는 홀로 눈물을 흘려야만 했고, 신군부가 무너져 민주 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외로이 고통받아야만 했다.

지금의 미얀마에선 그때의 광주가 다시 한번 펼쳐지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며 군부에 항거하고 있는 시민들과 그들을 폭력과 무력으로 탄압해 짓밟으려는 독재 권력이 존재한다. 이들의 폭력은 단순히 미얀마의 일부 시민들에게만 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이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인류 공동체가 그들로부터 잔인한 폭력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미얀마의 시민들은 국제 사회에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보호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 규정에 한 국가가 자국민을 전쟁 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면 국제 사회가 강제 조치를 취해 개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제 사회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5월 광주의 정신이 세계로 뻗어 나가 세계의 정신이 된 것의 중심에는 연대가 있었다. 비록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국민은 아니었지만, 숭고하고 동동한 가치를 함께 공유했기에 푸른 눈의 목격자들은 그들의 목숨마저 걸어가며 진실을 밝히고 광주의 상황을 알리려 노력해 왔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이 발달하지 못해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80년 5월 광주와는 다르게 미얀마에는 아직 희망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순히 선심으로 연대해서는 안 된다. 남의 이야기지만 단순한 동정심과 호의로 그들의 싸움에 힘을 보태 줘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미얀마에서 펼쳐진 모든 인권 유린과 폭력은 바로 우리의 문제이다. 다시는 광주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 그것이 광주 시민들이 5월의 그날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 취해야 할 행동이다. 세계의 도움을 받아 민주주의를 먼저 이루어 낸 빚진 자들로서의 마땅한 행동이다.

어떤 이들은 미얀마의 현장을 보며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며 인상을 찌푸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미얀마에서 지금도 광주가 되풀이되고 있다. 남이 아닌 우리의 문제를 외면하지 말자. 침묵으로 또 다른 광주의 비극과 상처를 만들어 내지 말자. 그리고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광주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서고 행동해야 한다.

수필의 향기

보이시나요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

보이시나요. 하얀 나비 떼처럼 나풀나풀 눈송이가 창문을 노크하네요. 꿈에 본 임인 양, 반갑게 두 팔을 벌려 봅니다. 은빛 선녀들은 어인 일인지 내게 닿자마자 사르르 녹고 맙니다. 지고한 그리움으로 저 먼 천상에서 내게로 달려왔건만, 그만 지귀(志鬼) 가슴에 놓인 여왕의 반지인 양, 제 품안에서 절절히 백설은 녹고 맙니다. 봄이 오나 봅니다. 꽃눈깨비가 빛나는 저 설원 너머로 봄이 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저 남녘, 해남 땅 강진만 섬진강을 한걸음에 달려온 푸릇푸릇한 봄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모든 일들이 다 잘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거리마다 사람들도 푸른 옷을 입고 나왔네요. 길거리 연인들이 정겹게 눈싸움을 하던 때가 며칠 전이었는데, 이젠 서로 두 눈을 바라보며 사랑의 눈싸움으로 번졌네요. 사랑싸움도 미움도 그리고 전쟁도 이렇게 눈싸움처럼 사르르 녹는 싸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총히 걸으며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어깨들이 다정하네요, 아이를 등교시키는 젊은 엄마와 손 흔들며 멀어져 가는 노란 버스와의 이별처럼, 이별도 오늘은 아름답네요. 시장에 도착한 트럭이 파란 채소를 쏟아내네요. 모처럼 웃는 할머니들의 입가에는 봄나물 향기가 뭉클하네요. 우리 모두 오늘처럼 해맑았으면 좋겠네요. 완도 청각처럼 싱싱하고, 장흥 파래처럼 새파랗고, 진도 물미역처럼 미끈하고, 여수 갓처럼 톡 쏘는 봄이었으면 좋겠어요. 웃음이 턱에 걸린 사람들의 아침 발걸음이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파란 보리밭 위로 봄비 내려오는 소리, 목마른 나무가 수액을 빨아올리는 소리, 씨앗들이 부지런히 땅을 뚫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당신의 옷깃으로 파고들며 양탈을 부리는 봄바람 소리가 들리시나요. 누군가가 저 멀리서 쫓아오며 애타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봄볕이 당신에게 소곤거리는 말에 어디 좀 걸음을 멈추고 들어 보세요. 들리시나요.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되어 경청해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두껍게 입은 옷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차림으로 당신의 가슴을 활짝 열고 맞이해 보세요. 당신 없이 못 산다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느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마음을 열고 느껴 보세요. 새벽부터 밤늦도록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아이의 발소리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다가가기 위해 부지런히 걷기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의 설렘인지도 모릅니다. 혹여 소음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계신지요. 고래고래 악을 질러대며 싸우는 시장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미워서 지르는 외침이 아니라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구구절절한 애원인지도 모릅니다. 저 높은 고공에서 외치는 여인네의 간절한 호소에 고개를 젓지 마세요. 몇날 며칠을 굶어가면서도 그녀는 당신과 같이 살자고 너무 힘들다고, 당신의 도움이 당신의 사랑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사랑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느껴지시나요. 마음이, 마음이 건네는 것들은 보고 듣는 것만으로는 아니 되지요, 몸으로 온몸으로, 가슴으로 온 가슴으로 느껴야지요.

누군가가 창가에서 우는 눈물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따듯한 손길을 뻗어 달라는 신의 부탁인지 모릅니다. 혹여 내 일이 아니라고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머리와 가장 먼 신체 부위는 바로 마음이지요. 느껴지시나요. 세상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랍니다. 불러도 끌어당겨도 오지 않는, 오직 느껴야만 오는 것, 마음이지요. 느낌이 중요하다잖아요. 자연의 소리, 이웃의 행복한 소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지만, 마음은 낮고 잔잔해서 느끼지 못하면 닿을 수 없고 갈 수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로 하는 사랑이 아닌 마음이 하는 사랑은, 마음이 마중 나가서 느껴야지요.

보이시나요, 사랑이 봄비처럼 촉촉하게 당신에게 오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잠시도 쉬지 않고 당신에게 달려오는 가슴 뛰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열어 보세요. 느껴지시나요, 해토되는 땅의 부드러움이, 새들의 깃털이, 당신 곁에 있는 이들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당신이 그토록 찾고 기다리던 바로 그것이 아니신지요.

당신에게 쿵쾅쿵쾅 달려가는 마음이 보이시나요. 낮고 어두운 곳에서 당신을 호명하는 마음, 사랑의 속삭임에 반응해 보세요. 봄이 피고, 생명이 뛰며, 사랑이 오는 것을 마음을 열어 만지고 끌어안아 보세요. 하시던 일 잠시 멈추시고 마음을 포옹해 보세요. 누군가를 또 새롭게 만나 사랑을 시작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다면 지금 호흡을 잠시 멈추고 당신에게 달려오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이 마음을 열고, 보고, 듣고, 느낄 때만이 펼쳐지는 새로운 세계, 신세계랍니다. 보이시나요, 들리시나요, 그리고 진정 느껴지시나요.

社說

미얀마 '태권 소녀'의 죽음과 광주의 연대

군경(軍警)의 강경 진압으로 수십 명이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다 숨진 19살 한 소녀가 우리를 울린다. 미얀마의 시위 현장에서 군경의 총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에인절이다. 그의 티셔츠에는 '다 잘 될 거야'(Everything will be OK)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태권도 강사이기도 했던 그녀는 시위에 나서기 전 페이스북에 혈액형 및 비상 연락처와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지 '내 시신을 기증해 달라'는 메시지도 남겼다. 그에게 태권도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트위터 등에 "스승이 떠났다"며 슬퍼하는 글을 올렸다. 워싱턴포스트는 "에인절이 젊은 이들에게 저항을 상징하는 존재가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그녀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시위에 참가한 사진을 올리고, '미얀마에 정의를' 등의 태그와 함께 한국어로 '미얀마를 구해 줘'라고 적기도 했다.

그녀의 죽음에서 1987년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던 이한열의 죽음을 떠올린다. 그리고 1980년 5·18 당시 스러져 간 수많은 영령들을 떠올린다. 80년 5월을 겪은 우리로서는 미얀마 군부독재의 만행이 도저히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아파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제 미얀마를 도울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마침 우리 광주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미얀마민주화운동 지지와 연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오월민주여성회와 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는 지난 6일 광주시 동구 민주광장에서 미얀마 민중들에게 보내는 연대의 집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5·18기념재단은 오월단체를 비롯해서 광주의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불교·기독교·천주교) 등 10개 단체가 모인 가운데 '미얀마 민주항쟁 지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미얀마 민주화운동 지지 연대기구' 구성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미약하나마 이러한 연대 활동이 미얀마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그들의 저항은 5·18과 너무나도 닮은꼴이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우리는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을 느낀다. 미얀마 군부는 당장 시민 학살을 중단하고 쿠데타를 철회하라.

(주)호원의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수사해야

광주 지역 중견 자동차 부품 업체인 (주)호원이 이른바 '어용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이 회사 임직원 아홉 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5일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를 만들자, 이틀 뒤 또 다른 노조인 호원노조를 설립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후 조합원 수가 더 많은 호원노조를 대표 교섭단체로 삼았다.

이에 호원지회는 지난해 2월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고, 노동청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노조원들이 제출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왔다. 노동청은 특히 회사 측이 이미 설립된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별도의 노조를 만드는 데 조직적으로 개입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한데 기아차 광주공장의 1차 협력업체인 호원은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 선도 기업'에 지정되기도 했다니 기가 찰 일이다.

복수 노조의 경우 노사 협상 과정에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는데, 사측 주도로 결성된 노조가 과반으로 대표 교섭단체가 되면 기존 노조는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 기본권마저 탄압하는 회사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쭉정이는 가라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대권 잠룡들에 대한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연달아 발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한국정치의 중심인 호남에서도 잠재적 대선후보들을 지지하는 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론조사로만 보면 최근 1강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 도지사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지 모임이 지역 내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반면 지지율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일부 후보 진영에서는 기존 지지 세력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대선까지는 무려 1년의 세월이 남아 있다.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 대형 변수도 잇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확실한 지지율 등락에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듯싶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제 15대 대통령 선거일을 두 달 가량 남겨 둔 1997년 10월 7일. 강삼재 사무총장은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DJ 비자금 의혹'을 전격 폭로했다. 이날 강 총장이 DJ 비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됐다는 300여 개 통장 사본을 공개하자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안기부가 뒷조사를 해서 파헤친 거니 김대중은 끝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평소 정치인과 지지 세력들로 북적였던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는 기자회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썰렁하게 변해 버렸다.

물론 검찰이 다음 해 2월23일 사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또는 불입건 처리하면서 비자금 의혹은 해소됐다. 이 과정에서 당시 박지원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특보는 "위기에 처하면 진짜와 가짜를 알 수 있다"는 말을 남겼다. 박 특보의 말처럼 이후 DJ가 당선된 뒤 국민회의 측에서는 이 사건이 '알맹이와 쭉정이를 가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후보에 대한 지지율 변동에 따라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것은 선거 캠프에서 늘 있는 일이다. 지지율에 관계없이 소신과 신념을 갖고 후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후보들에게는 앞으로도 수많은 위기가 찾아 올 터이지만, 위기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짜와 가짜를 가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